

『忠州郡量案』과 충주군 대지주

남금자*

-
- I. 머리말
 - II. 『忠州郡量案』의 작성과 내용
 - III. 충주군 대지주
 - 1. 不在地主
 - 2. 在地地主
 - 3. 충주 세거 성씨의 대지주
 - 1) 청주 한씨 대지주
 - 2) 영일 정씨 대지주
 - IV. 맺음말
-

I. 머리말

충주는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전국 5위 규모의 大邑으로 충청도에 서 가장 많은 인구나 경작지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정약용은 民戶의 수로 郡縣의 등급을 구분하면서 民戶 2만3천9백호의 충주를 3만호 이상인 평양 다음의 대읍으로 꼽고 있다. 田結에서도 충주를 공주·전주와 함께 2만결 이상의 대읍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군현보다 전결이 많은 곳은 해주와 나주 정도였다.¹⁾ 충주의 邑勢를 짐작할 수 있는 기

* 충주세계무술박물관 학예연구사

1) 정약용, 『經世遺表』 券4, 天官修制 郡縣分等.

록이다.

충주는 일찍부터 사방에서 배와 수레가 모여 들어 큰 도시가 형성되고,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주요 정치세력과 유력 가문들이 세거하였다.²⁾ 이러한 사실은 『忠州郡量案』의 대지주층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忠州郡量案』은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양안으로 대한제국기 추진된 개혁 작업의 일환인 양전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토지대장이다. 『忠州郡量案』은 1900년 양지아문에서 만든 『忠淸北道忠州郡量案』(奎 17682) 中草本과 1902년에 지계아문에서 작성한 『忠淸北道忠州郡量案』(奎 17681) 正書本이 남아 있다. 이 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忠州郡量案』 정서본이다.

『忠州郡量案』에 따르면 20결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층 대부분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활동하던 관료들이었다. 충주는 남한강을 이용하여 서울로 왕래하기 편하여 많은 사대부들이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들 충주군 대지주들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정도로 비중이 큰 인물들이었다. 예를 들어 외척 세도가문인 안동김씨를 비롯하여 여흥 민씨·풍양 조씨·남양 홍씨 그리고 정철의 후손 정호가문의 세도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忠州郡量案』 내용과 충주군 양안에서 확인되는 대지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한제국기 양전사업이 충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충주군 대지주의 경제기반이 되는 토지 소유를 확인 해 보고자 한다.

II. 『忠州郡量案』의 작성과 내용

대한제국 정부는 황제권을 강화하고 정치세력과 권력구조를 재편하여 개혁을 추진해 나갔는데, 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전사업은 국가 재정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세

2)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忠淸道.

수입을 합리적으로 징수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여, 나아가 토지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었다.³⁾ 이 시기 대한제국은 국가 전반에 걸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토지와 지세제도의 개혁에 주목하였다.

당시 지세 수입은 국가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혁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농업은 주요 산업부문에 생산력 발전과 토지의 상품화, 상품유통경제의 발전이라는 당면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개혁을 추진하는 집권 관료들에게 근대국가로의 정책뿐 아니라 농업개혁의 방향과도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였다.⁴⁾

양전과정은 토지 측량과 양안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구분되며,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선 각 지방의 面 단위로 실제 野에 나가 측량하여 野草本을 만들고, 두 번째로 지방 관아에서 이를 모아 편집하여 中草本을 만들며, 양지아문에서 中草本을 정리하고 정서해서 正書本으로 만든다

야초책은 양안의 가장 기초 장부이다. 현지에 나가 실제 측량을 하면서 각 필지별로 전답과 가옥의 구별, 배미, 양전방향, 전답도형과 사표, 실적, 등급, 결부, 전답주 및 작인 등의 기본사항을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토지측량은 양무위원과 측량교육을 받은 학원이 진행하였다. 그리고 해당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指審人·洞任·監色 등을 참여시켰다. 경상도 의성군의 사례를 통해 하루의 토지측량을 유추해 보면, 필지 수로는 120필지 내외이고 면적의 실척 수는 10만 여 척이다.⁵⁾

중초책은 각 면별로 작성된 야초책을 면의 순서에 따라 자호와 지번을 부여하면서 면적과 결부, 시주와 시작 기재의 정확성 여부와 더불어 사표와 시주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서 작성한 장부이다. 정서책은 각 지방에서 정리되어 만들어진 중초책을 양지아

3) 이영학, 2010, 「대한제국의 경제정책」,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편), 해안, 27쪽.

4) 왕현중, 1995, 「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41쪽.

5) 이영호, 1995, 「光武量案의 기능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30쪽.

문에서 취합하여 게재 형식을 통일하여 완성한 것이다. 양지아문의 조사위원들은 각 군별로 작성된 양안을 바탕으로 전답의 실면적 통계 및 각 필지별 결부, 시주, 시작에 대한 사항을 몇 번의 검토를 거쳐 정서책을 만들었다.⁶⁾

중초본은 98책으로 제1책 유등면에 郡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郡總目이 있다. 군총목의 기재 내용은 郡界·字號·田畝實積尺·田畝結總·實田畝結總·居民·火粟結·公廩·祠院·里塾寺刹 등이다. 郡總目에는 내용을 수정한 添紙가 붙어 있는데, 이 수정된 군총목이 지계아문에서 작성한 『忠淸北道忠州郡量案』(奎 17681)에 正書되어 나타난다. 각 面總目도 군총목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초본 양안작성 형식을 보면 각 필지마다 地番, 量田 方向, 地形, 地目, 畝座數, 四標, 田畝 圖形, 田畝實 積尺, 土地 等級, 結負數, 時主·時作(家主·垵主), 草瓦 間數 등을 차례로 기재하였다. 欄外上段에는 谷·里·垵洞·坪名이 기록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欄外上段에 지명과 함께 指審人을 기재는 경우가 많은데, 『충주군양안』 중초본에는 지심인을 기재한 곳이 거곡면(제90책) 뿐이다. 字號는 一字 五結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每 字號 內 五結의 田畝를 實積尺數로 표시한 다음 田結, 답결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居民戶數와 草瓦間數, 公廩, 寺刹座數 등도 병기하였다.

火粟田의 경우 일반 田畝와 달리 해당 字號 內 마지막 지번 다음에 기입하거나 面量案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面內의 火속전을 함께 모아 별도로 기재하고 있다. 그 작성 형식은 火속전의 소재지명, 火속 결부 수, 洞任名 등을 기록하였다. 이때 洞任 대신 尊位라고 기록한 것이 있는데 감미면(제70책)이 그 경우이다.

각 面의 量案 말미에는 위원과 학원의 성명을 기입하였는데 생략된 面도 많다. 위원을 기록하였을 경우 대개 위원 1일에 학원 3·5인이 보통이나 많은 경우에는 학원이 7인인 경우도 있고, 학원만 기록된 경

6) 이영학, 1995, 「대한제국기 토지조사사업의 의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7~18쪽.

우, 위원·학원 외에 豫備·書寫·書記 등이 함께 기록된 예도 보인다. 생동면의 경우는 頭領과 학원으로 기록하였다. 아래 표는 38개의 면에 대한 중초본 98책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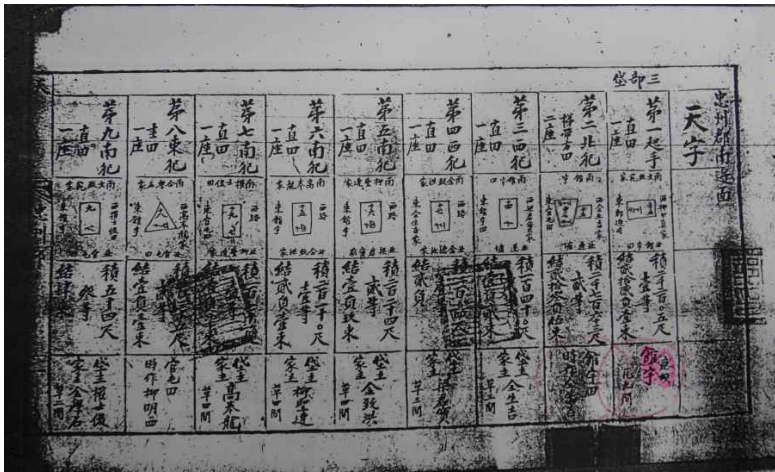
<표 1> 『忠州郡量案』 중초본

	면명칭	비고		면명칭	비고
1	柳等面	제1~2책	20	栗枝面	제53~54책
2	豆衣面	제3~4책	21	德面	제55~56책
3	川岐音面	제5~6책	22	可興面	제57~58책
4	福城面	제7~9책	23	北邊面	제59~62책
5	金生面	제10~11책	24	周柳面	제63~64책
6	南邊面	제12~15책	25	加次山面	제65~66책
7	沙伊面	제16~18책	26	蘇坡面	제67~68책
8	東良面	제19~21책	27	甘味面	제69~70책
9	申尼面	제22~23책	28	佛頂面	제71~72책
10	沙多山面	제24~25책	29	金遷面	제73~74책
11	德山面	제26~29책	30	老隱面	제75~78책
12	法旺面	제30~32책	31	蘇台陽面	제79~80책
13	所吞面	제33책	32	薪石面	제81~83책
14	孟洞面	제34~36책	33	仰巖面	제84~85책
15	利安面	제37~39책	34	山尺面	제86~87책
16	金日面	제40~42책	35	枝內面	제88~89책
17	嚴政面	제43~48책	36	居谷面	제90~92책
18	甘勿面	제49~50책	37	豸味面	제93~96책
19	大鳥谷面	제51~52책	38	笙洞面	제97~98책

정서본은 중초본 98책을 底本으로 작성한 것으로, 중초본 98책을 一面 마다 一冊으로 묶어 38책으로 만들었다. 정서본의 양안작성 형식은 중초본과 거의 동일하고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정서본은 面 양안 맨 앞에 字次가 나온다. 제1책인 남변면의 경우 天字로부터 場字까지(自天至場) 136자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쪽수를 부여하였으며, 欄外上段에 기록된 指審인이 사라졌다. 여주군양안 중초본의 경우 지명과 함께 지심인을 기록하였는데, 충주군양안의 중초본에는 지심인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아래 그림은 정서본 양안으로 중초본과 다른 양안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양전 처음 시작이 관아로부터 시작되어 그 첫 번째 필지를 <第一起手>로 표기하였고, 양전 시작을 의미하는 字號 天 字가 보이며, 지명 三部堡 옆의 지심인이 사라졌으며 쪽수를 표시한 부분이 나타난다. 쪽수를 표시한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어, 숫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림1> 충주군 양안 정서본

책 말미에는 始量日, 畢量日, 正書日과 量務監理, 量務委員, 學員, 調査委員 등이 차례로 기록되었다. 38개 面 가운데 36개 面⁷⁾의 말미에 기록된 始量日, 畢量日, 正書日, 量務監理가 모두 동일하다. 이에 따르면 충주는 1900년(광무 4, 庚子) 10월 8일 양전을 시작하여 12월 20일에 마쳤고, 正書는 1902년(광무 6, 壬寅) 8월 20일에 하였으며, 양무감리는 李德夏이다.

충주군 양전사업은 양무감리 이덕하의 주관 하에 송원섭 등 19명의

7) 이안면과 천기읍면은 기록이 없는데, 기타 면과 같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무위원이 86명의 학원을 대동하여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덕하는 충북의 양무감리로 1900년 3월 28일에 임명되었다.⁸⁾ 중초본의 경우 위원과 학원 기재가 생략된 면이 많다고 하였는데, 아래 표에 따르면 36개의 면에 기재되어 있다. 양안을 正書하면서 첨부된 것으로 짐작된다.

<표2> 충주군 양전에 참여한 양무위원 · 학원 · 조사위원

	명칭	양무위원	학원	조사위원
1	남변면	송원섭	金庚植 · 徐廷奎,	이종범, 이필우
2	북변면	이태응	박진양, 정규석, 신취수	이종범, 임병교
3	동량면	김학제	이인홍, 김병제, 이석일	이종범(학원 이장하)
4	산척면	김이현	이병지, 이만우, 류해준	이종범(학원 이방녕)
5	엄정면		고익진 박해면, 이병식	이종범(학원 이해조)
6	소대양면		이기하, 이귀연	이종범, 이해조
7	앙업면	조신하	채두목 신두영, 김완진	이종범(학원 이방영)
8	복성면	조신하	채두목, 신두영, 김완진	이종범(학원 이장하)
9	거곡면		정운장 윤섭영, 안병관	이종범, 이필우
10	감미면		김규영, 이영조, 이삼규, 최두영	이종범(학원 홍성두)
11	생동면	이재소	정홍석, 이규용, 임장재	이종범(학원 이방녕)
12	범왕면		이정규, 정운태, 민태식, 신세구	이종범(학원 이해조)
13	두의면	이희상	이영만, 정인구, 이구순	이종범, 홍성두
14	지내면	이희상	이영만, 정인구, 서정국	이종범, 이필우
15	사다산면	이범규	남정용, 김사면 이의일	이종범(학원 홍정유)
16	천기읍면			
17	대조곡면	송재성	박노의, 이진하, 오훈수	이종범(학원 이방녕)
18	소탄면	송재성	박노의, 이진하, 오훈수	이종범(학원 홍정유)
19	맹동면	전광준	노병실, 이남제, 김용준	이종범, 임병교
20	금목면	이복규	이두하, 박선보, 임형재	이종범, 유한로
21	신니면		김규영, 이영조, 이삼규, 최두영	이종범, 이해조
22	신석면	이용제	안상열 이홍위 유지하	이종범, 임병교

8) 『承政院日記』 고종 37년 3월 庚午.

23	덕 면		송우현, 정용원, 이종호, 오훈수	이종범, 이필우
24	노은면		이흠, 권성집, 신성희	이종범(학원 이장하)
25	가흥면		홍종원, 박대순, 유봉진, 조종석	이종범, 유한로
26	가차산면	홍종달	박대순, 유봉진, 조종석	이종범(학원 이방녕)
27	김생면	이복규	이두하, 박선보, 임형재	이종범, 이방녕
28	금천면		류근웅, 박정원	이종범, 이방녕
29	이안면			
30	주류면	신달수	이철종, 신봉균, 신세균	이종범, 이필우
31	소이면		신직휴, 유성득	이종범, 이방녕
32	소파면	유정상,	조의진, 심계기, 노원익	이종범(학원 임병교)
33	불정면		이범구, 성낙주, 김기홍, 어명세	이종범(학원 홍정유)
34	울지면	이종구	송대수, 송철현, 유성득	이종범(학원 이장하)
35	감물면	노익빈	윤상적, 이형우, 엄주현	이종범(학원 이장하)
36	유등면		이종구, 송대수	이종범, 이방녕
37	살미면	박창훈	홍창섭, 박리양, 임영대	이종범(학원 홍정유)
38	덕산면		송도섭, 한명전	이종범, 홍정유

위 표에 의하면 모든 면에 양무위원이 있지는 않다. 양무위원은 郡 단위로 임명된 관리로 그 수가 제한되지 않았다. 양무위원이 있는 면은 23개로 19명이⁹⁾ 기재되어 있다. 13개의 면에 양무위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곳은 학원만으로 토지를 측량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변면의 양무위원 송원섭은 1899년 4월 27일 양치이문의 양무위원에 가장 먼저 임명되었다.¹⁰⁾ 산척면 김이현이 1899년 9월 26일에 임명되었고¹¹⁾, 북변면의 이태응과 동량면의 김학제가 1900년 3월 26일에

9) 업정면과 살미면에는 각각 3명·4명으로 되어 있다. 업정면과 살미면의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업정면과 살미면은 양무위원만 있고 학원이 없는데, 첫 번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학원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양무위원으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학원으로 분류하였다.

10) 『承政院日記』 고종 36년 4월 27일 甲辰.

11) 『承政院日記』 고종 36년 9월 26일 辛未.

임명되었다.¹²⁾ 그리고 양엄면의 양무위원 조선히를 비롯한 이희상·이범규·송재성·이복규·신달수·유정상·노익빈이 1900년 8월 19일에 양무위원에 임명되었으며¹³⁾, 살미면 박창훈이 1900년 12월 11일에 임명되었다.¹⁴⁾

조사위원은 각 면별로 2명이 기록되었다.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은 이종범이고 그 옆에 한명이 더 기재되어 있다. 충주군양안에 동원된 조사위원은 10명이다. 이종범은 모든 면의 조사위원이고 그 옆에 9명이 중복되어 표기되어 있다. 9명 가운데 이필우를 제외한 8명이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학원이 정서본을 만들 때에는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표에 따르면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학원이 충주군양전의 학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양무위원과 조사위원을 별개로 임명하였던 것처럼 조사위원과 학원도 별개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광무 양전사업의 철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사위원 이종범은 1900년 6월 2일에 양무위원으로 임명된 기록이 있다. 이때 양무위원으로 함께 임명된 사람이 조사위원으로 기록된 이필우·홍정유·유한로 등 3명이다.¹⁵⁾ 홍성두는 1901년 3월 16일에 양무위원에 임명되었고,¹⁶⁾ 임병교·이방녕·이해조도 1901년 10월 21일에 양무위원으로 임명된다.¹⁷⁾ 조사위원은 양무위원과 동격으로 짐작된다고 하였는데,¹⁸⁾ 조사위원이 양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사실을 통해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학원은 면별로 2명에서 4명이 기록되어 있다. 중초본의 경우 학원이 7인인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위 표에 따르면 정서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빠져있는 이안면과 천기음면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

12) 『承政院日記』 고종 37년 3월 26일 戊辰.

13) 『承政院日記』 고종 37년 8월 19일 戊子.

14) 『承政院日記』 고종 37년 12월 11일 戊申.

15) 『承政院日記』 고종 37년 6월 2일 壬申.

16) 『承政院日記』 고종 38년 3월 16일 壬午.

17) 『承政院日記』 고종 38년 10월 21일 癸丑.

18) 金容燮, 2003, 「光武年間の 量田地契事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I, 지식산업사, 283~285쪽.

각된다. 충주군 양전에 동원 된 학원은 86명으로 이들 가운데, 남변면의 김경식을 비롯한 이기하(소태양면)·이흠(노은면)·박대순(가흥면)·노병설(맹동면)·유치하(신석면)는 1900년 12월 11일 양무위원으로 임명된다.¹⁹⁾ 두의면의 학원 이구순은 1901년 2월 1일에 양무위원으로 임명되고,²⁰⁾ 주류면 학원 신봉균은 1901년 10월 22일에 임명된다.²¹⁾ 학원 86명 가운데 8명이 양무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양전사업이 확대되면서 학원 중에서 양무위원으로 임명하였는데²²⁾, 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86명 가운데 30명은 기록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학원은 중앙에서 과건되거나 양무감리가 스스로 모집하여 교육한 견습생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들 30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충주군양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양무위원 19명, 조사위원 10명, 학원이 86명이다. 이들 115명 가운데 충주군양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양무위원 19명 중 이태웅·김학제·김이현·이희상·이범규·이복규·이용제·이종구 등 8명이 충주군양안에 시주·시작으로 나타나며, 이들 중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람은 이태웅·김학제·이희상·이복규 4명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양무위원이 소유한 토지와 차경지가 있는 면에는 자신이 양무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위원의 경우, 10명 중 2명이 충주군양안에서 확인된다. 동량면의 이장하와 산척면의 이방녕이다. 동량면 조사위원 이장하는 동량면에 토지를 60부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초가 5칸 집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천면의 조사위원 이방녕은 남변면에 1결57부1속, 금천면에 2부1속의 토지가 있고 거주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사위원 2명은 양무위원과 달리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양의 토지는 아니었다.

학원의 경우는 86명 가운데 34명이 충주군양안에서 확인된다. 이들 가운데 거주지가 있는 학원이 26명이다. 충주군양안에 기재된 학원 34

19) 『承政院日記』 고종 37년 12월 11일 戊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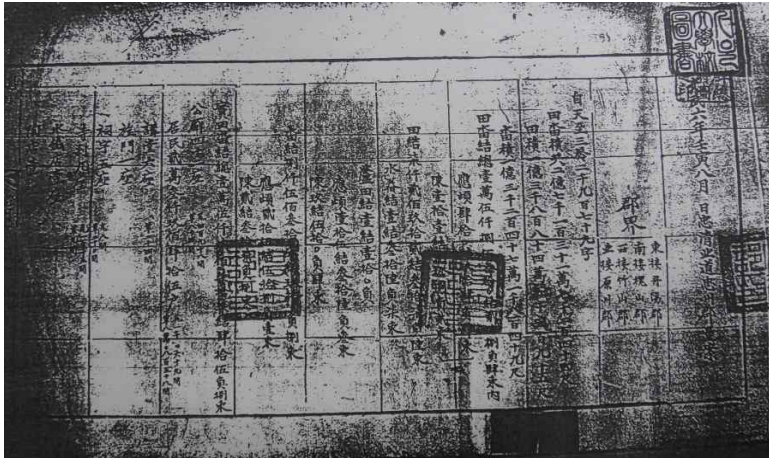
20) 『承政院日記』 고종 38년 2월 1일 丁酉.

21) 『承政院日記』 고종 38년 10월 22일 甲寅.

22) 『草亭集』 9권, 「報告量地衙門書」 광무 3년 12월 26일 참조.

명 가운데, 자신의 토지와 차경지가 있는 면에 학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3명 뿐이다. 이들 3명은 학원으로 활동한 면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학원의 경우도, 양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차경지가 있는 면에는 학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광무 양전사업이 상당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본 양안의 책 순서는 중초본과 달리 배열하였다. 정서본은 중초본 98책을 一面 마다 一冊으로 묶어 38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번호 순과 책 순서가 일치한다. 정서본은 제1책이 남변면으로 이곳에 군총목이 기록되어 있다. 군총목에 따르면, 충주의 郡界는 동쪽으로 단양군, 남쪽으로 괴산군, 서쪽으로 죽산군, 북쪽으로 원주군에 접해 있다. 충주가 大邑임을 짐작케 하는 경계이다. 字號는 5결마다 사용하여 천자문 3회가 돌아 2,979字이다. 처음 天은 天 字만 기록하고 두 번째는 天 字앞에 작게 ‘二’를 기록하였다. 세 번째 역시 ‘三’을 작은 글씨로 天 字앞에 기재하여 구분하였다. 田畝實積尺은 271,317,244尺이고 田畝 結總이 15,830결 28부 4속이다. 公廩는 42座로 瓦 498칸 草 84칸이고, 居民는 23,945戶로 瓦 1,069칸 草 80,858칸이다. 사찰은 9座로 瓦 115칸 草 9칸이다. 火粟田은 해당 字號 內 마지막 지번 다음에 기입하거나 面量案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面內의 화속전을 함께 모아 별도로 기재하고 있다. 충주군 화전은 88결 94부 1속으로 나타난다. 화전은 개별 시주나 시작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洞任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洞田일 가능성이 있다. 아래 그림은 충주군 군총목 양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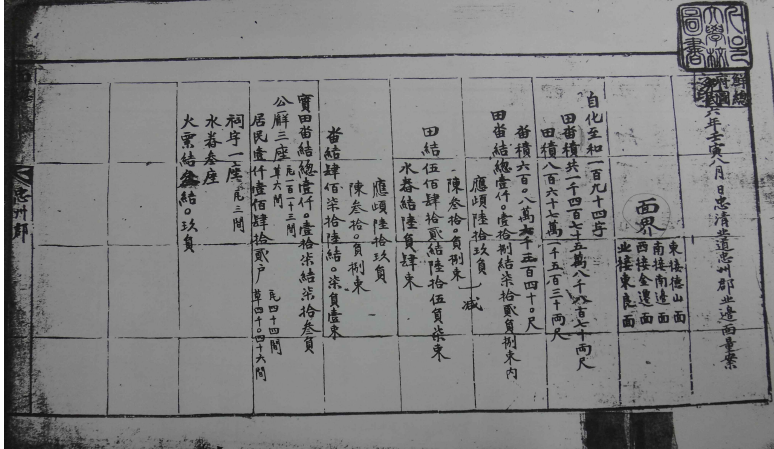
<그림2> 충주군 군총목 양안

<표3> 충주군 군총목

郡界	字號	田畓實積尺	田畓結總	公廩	居民	사찰	火粟田
동: 단양군	천자문	271,317,244	15,830-28-4	42座	23,945 戶	9座	88-94-1
남: 괴산군	3회사용		田結 7292-37-6	瓦 498	瓦 1,069	瓦 115	
서: 죽산군	2,979字		畓結 8537-908	草 84	초 80,858	草 9	
북: 원주군							

面總目도 군총목 형식과 동일하다. 아래 그림은 북변면 면총목이다. 그림에 따르면 북변면 面界는 동쪽은 덕산면, 남쪽은 남변면, 서쪽은 금천면, 북쪽은 동량면과 접해 있다. 字號는 化字에서 和字까지 194字를 사용하였다. 전답의 積은 14,758,872尺으로 田이 8,671,532尺이고, 畓이 6,086,340尺이다. 북변면은 면적에 있어 밭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답결총은 1018결 72부 8속이고 응탈이 69부, 陳田이 30부 8속이다. 田結이 542결 65부 7속이고 水春結이 6부 4속이고 陳田이 30부 8속이

고, 畚結은 476결 7부 1속으로 實田畚結은 1,017결 73부이다. 公廩가 3座로 瓦 113칸 草 6칸이다. 居民은 1142戶로 瓦 44칸 草 4046칸이다. 水春은 3座이고 火粟結은 3결 9부이다.



<그림3> 충주군 북변면 면총목

<표4> 충주군 북변면 면총목

面界	字號	田畚實積尺	田畚結總	實田畚結總	公廩	居民	火粟田
동: 덕산면	친자문	14,758,872	1018-72-8	1017-73-0	3座	1,142 戶	3-09-0
남: 남변면	化和	8,671,532	542-65-7	응탈 69-0	瓦 113	瓦 44	
서: 금천면	194 字	6,086,340	476-07-1	진전 30-8	草 6	草4,046	
북: 동량면							

양안은 필지마다 時主와 時作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주와 작인 농민을 구분하고, 거민을 垆主와 家主로 기록하여 대지의 소유주와 가옥의 거주민을 파악하였다. 字號地番·四標, 납세액을 책정하기 위한 結

負・田品等級・尺數를 기록하였고 초가·와가의 칸수도 표기하였다. 그리고 欄外上段에는 地名(洞里・谷・坪・垓名)을 표기하여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양안이 지닌 독보적인 자료 중 하나가 지명으로, 충주군양안에는 4,605개의 지명이 나온다. 이는 기존 조사된 지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²³⁾

100여 년 전 충주는 지금의 지역보다 큰 규모였다. 당시 충주군 38개의 面은 현재의 충주시를 중심으로 진천·음성·괴산·제천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진천으로 편입된 충주군 지역은 2곳으로 사다산면·맹동면이다.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이 음성으로 모두 15개의 지역이 음성으로 편입되었다. 즉, 거곡·감미·생동·법왕·두의·지내·사다산·천기음·대조곡·소탄·맹동·금목·사이·소과·율지 등 15개면이다. 그리고 괴산 지역으로 불정·감물면의 일부가 편입되었으며, 덕산면이 제천으로 옮겨갔다.²⁴⁾

<표5> 『忠州郡量案』의 정서본

	명칭	비고		명칭	비고
1	남변면		20	금목면	음성군
2	북변면		21	신니면	
3	동량면		22	신석면	
4	산척면		23	덕면면	
5	엄정면		24	노은면	
6	소대양면		25	가흥면	
7	양암면		26	가차산면	
8	복성면		27	금생면	
9	거곡면	음성군	28	금천면	
10	감미면	음성군	29	이안면	
11	생동면	음성군	30	주류면	
12	법왕면	음성군	31	사이면	음성군
13	두의면	음성군	32	소과면	음성군
14	지내면	음성군	33	불정면	괴산군
15	사다산면	진천군음성군	34	율지면	음성군
16	천기음면	음성군	35	감물면	괴산군

23) 신영우편, 2010, 『광무양안과 충주의 사회경제구조』, 해안, 308쪽.

24) 다른 시군(진천, 음성, 괴산, 제천)으로 편입된 지역은 面 지역 전체가 아니고 面의 일부 지역이다.

17	대조곡면	음성군	36	유등면	
18	소탄면	음성군	37	살미면	
19	맹동면	진천군음성군	38	덕산면	제천시

충주군 전체의 농업생산력은 양안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郡總目에는 충주군의 境界뿐 아니라 충주군 전체 田畝 實積과 結總의 총액을 명확히 기록해 놓았다. 이는 조선후기 이래의 총액제적 수취를 가능하게 했던 토지문서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음 표는 『忠州郡量案』의 전체의 결총을 면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6> 『忠州郡量案』의 郡總目的 田畝結總

	명칭	합계	순위		명칭	합계	순위
1	남변면	716-17-8	2	20	금목면	574-08-7	5
2	북변면	1018-72-8	1	21	신니면	292-43-8	32
3	동량면	510-32-4	9	22	신석면	412-88-7	15
4	산척면	406-17-8	17	23	덕면면	541-71-0	8
5	엄정면	542-54-1	7	24	노은면	606-99-5	4
6	소태양면	398-13-3	18	25	가흥면	243-04-9	34
7	양업면	388-84-3	19	26	가차산면	324-89-3	26
8	북성면	453-11-3	13	27	금생면	387-55-4	20
9	거곡면	450-08-3	14	28	금천면	371-37-6	22
10	감미면	256-75-8	33	29	이안면	410-43-8	16
11	생동면	467-13-1	12	30	주류면	345-31-0	25
12	범왕면	362-26-5	23	31	사이면	305-11-3	29
13	두의면	241-74-6	35	32	소곡면	311-49-0	28
14	지내면	379-79-7	21	33	불정면	485-79-2	10
15	사다산면	303-51-8	30	34	울지면	244-08-1	37
16	철기읍면	226-21-2	36	35	감물면	299-51-8	31
17	대조곡면	322-69-7	27	36	유등면	351-11-4	24
18	소탄면	210-14-4	38	37	살미면	572-42-4	6
19	맹동면	646-63-8	3	38	덕산면	468-98-8	11

전답 결총이 가장 많은 곳은 북변면이고 그 다음이 남변면이다. 두 지역은 충주읍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충주읍은 남한강 유역 내 최고의 수륙교통의 중심지이다. 표에 의하면 충주읍 다음으로 맹동면과 금목면 그리고 노은면과 살미면이 농업생산력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Ⅲ. 충주군 대지주

다음 표는 20결 이상을 소유한 충주군 상위지주를 정리한 것이다. 『忠州郡量案』에서 확인되는 대지주들의 가문을 살펴보면, 특히 세거 집안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외척 가문이다. 헌종 妃 효현왕후의 집안인 안동 김씨와 명성황후 집안 여흥 민씨가 있으며, 익종 妃 신정왕후 집안 풍양 조씨와 헌종의 계비 효정왕후 집안 남양 홍씨가 있다. 그리고 외척 가문은 아니지만, 유력가문으로 알려진 정호 집안인 영일 정씨와 청주 한씨 등이 있다.

효현왕후 친정 집안인 안동 김씨는 충주 탄금대를 중심으로 세거하였다. 여흥 민씨의 경우 민병석 집안은 임오군란 時 피난처를 제공한 장호원을 중심으로 세거하한 가문이다. 민병석 집안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 척족의 핵심으로 부상한 가문이다. 그의 집안은 임오군란 時 민비의 피난을 주도하여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壬午六月日記』에 의하면 민병석의 조부 민영위는 충주 매산 장호원의 집을 피난처로 제공하였다. 민비가 피난한 51일 가운데 가장 많이 머무른 곳이 민영위의 집이다. 3촌 민형식은 피난 중인 민비를 호종하여 파격적으로 발탁되었고, 5촌 민응식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민응식의 아들 민병승 또한 가문과 부친의 세도에 편승하여 세도를 누렸다. 그리고 민병석의 재종조부가 되는 민영기 또한 피난길을 호종했던 공으로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직을 거쳤다.

그리고 민영휘와 민영익은 금왕읍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여흥 민씨 대부분은 현재 충주지역이 아닌 음성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풍양 조씨 세도가들은 장호원이 있는 거곡면과 남한강 수로에 위치해 있는 금천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남양 홍씨 세도가들도 남한강 수로에 위치해 있는 남변면과 북성면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유력가문 영일 정씨 경우도, 남한강 수로에 위치한 금천면에 세거하였고, 청주 한씨는 대

소원이 있던 이안면에 세거하였다. 아래 <그림4>는 이들의 토지소유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7> 충주 상위 지주²⁵⁾

단위(결·부·속)

순위	이름	소유(결)	家垓	순위	이름	소유(결)	家垓
1	민병환	79-56-2		19	민형기	32-70-1	생동면 新昌洞垓
2	민응식	78-80-4		20	구형조	29-96-3	금천면 外無慢洞 울지면 大塔洞 김생면 毛山洞
3	홍순형	66-95-3		21	홍정희	28-32-4	소파면 雪皮四里垓
4	한성희	63-87-4	이안면 大召院洞	22	정필원	27-70-2	금천면 琴亭
5	정세원	58-58-4	금천면 光垓 북변면 珠峰酒店	23	홍승인	26-62-1	가차산면 草堂洞垓
6	한경희	49-10-4		24	김정규	26-39-2	
7	閔炯植	46-33-6		25	조장복	25-77-5	
8	민병석	45-99-6		26	민만돌	24-39-1	
9	김갑규	43-84-1	동량면 大也	27	이우상	24-25-7	
10	이중건	42-49-5	천기읍면 店洞坪	28	이순길	23-90-9	산척면 德海洞垓
11	민병승	40-67-8	생동면 新昌洞垓	29	조형하	23-40-8	산척면 龍巖垓
12	이중태	38-64-5	동량면 兩牙	30	조동운	22-75-7	
13	민영휘	36-88-8		31	정규원	22-60-9	살미면 雙川洞
14	한백영	36-09-1	이안면 大召院洞	32	민영익	22-59-3	
15	정해륜	36-03-7	금천면 島里	33	윤우영	22-39-6	신니면 本里
16	김용규	35-54-5	엄정면 文乃谷 신석면 龍堂洞	34	이도춘	22-38-9	김생면 盤松
17	김영시	33-95-7	감물면 桂潭洞	35	민순만	21-06-5	
18	조순구	33-79-5	주류면 倉田二里	36	박대현	20-94-0	사다산면 中五柳洞

※ 1결 = 평균 40두락=쌀40석(米 600斗)²⁶⁾

25) 『忠淸北道 忠州郡量案』, 奎 17681-v.1-38.

26) 茶山 정약용은 당시 1결 생산량을 40두락 내지 60두락으로 계산하였다(정약용, 『牧民心書』 戶田 平賦). 여기에서는 1결을 최소 40두락으로 계산하였다. 즉, 1결=40두락=40석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세력가들의 토지는 교통이 편리하며, 유통이 발달한 남한강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 본 충주군 상위지주들에게서 확인되고 있다. 충주는 일찍부터 남한강 수운을 이용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경상도와 경기도를 잇는 요충지로 조령과 죽령을 통하는 육로로 경상도 지방과 연결되어 있었고 남한강 수운으로 경기지방을 왕래하였다. 즉 영남 화물과 한양 어염이 충주 금천(金遷)에 집산하였으며, 동해 어선과 영협(嶺峽) 화물이 목계(牧溪)에 집산하였다.²⁷⁾ 충주는 원격지 유통의 거점으로서 북으로는 강원도를, 동으로는 체천 시장을, 남으로는 괴산 시장을 시장권에 포괄하는 최대 場이었다.²⁸⁾

충주의 유통망은 서울로 가는 길목에 여주·이천·광주와 연결되어 보다 더 확대되었는데, 농업경영은 이러한 유통망을 이용한 형태가 발달하였다. 서울의 세가들이 충주 일대에 농토와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소작료가 상당한 물량을 형성하여 운송되었을 것이다. 『忠州郡量案』에서 확인되고 있는 관료 대지주들 또한 이러한 유통망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였다.

<표7>의 충주군 상위지주 36명은 家垵地 소유에 따라 충주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在地地主와 不在地主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부계지주와 재지지주 그리고 충주에 오랫동안 세거하여 현재에도 그 후손들이 충주에 거주하고 있는 세거 성씨 지주로 살펴 보았다.

1. 不在地主

충주군 최대지주 민병한(1861~1939)은 1889년 문과에 급제하여, 1890년에 세자시강원설서·필서를 거쳐 1890년에 성균관대사성을 역임하였다. 이후 검교필선을 역임하고 1893년에는 이조참의가 되었다.²⁹⁾ 그의 과안에 따르면, 거주지가 충주로 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27) 이중환, 『擇里志』 충청도편 참조.

28) 李憲稔, 1990, 「개항기 시장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82~183쪽.

충주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의 토지는 기타 민씨 척족의 세력가들과 달리 모두 현재의 충주지역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충주읍에 해당하는 북변면 지역에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덕면과 유등면 순이다. 79결 56부 2속의 토지 중 19부 4속을 제외한 나머지를 269명의 작인에게 대여하였다. 그는 전형적인 병작 지주였다.

2위 민응식(1884~1903)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인물이다. 임오군란 이후 민응식은 호종공신 첫 자리를 차지하고, 그 해 바로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하기 시작하였다.³⁰⁾ 특히, 갑신정변 직후 평안감사로서 평양의 西營병사들을 이끌고 상경하여³¹⁾ 왕실의 호위를 담당함으로써 실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³²⁾ 민병석과 논의하여 김옥균 암살을 위해 장은규를 일본에 밀파하기도 하였다. 그의 토지는 78결80부4속으로 자신의 집이 있었던 장호원을 중심으로 거곡면에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작지 50부 3속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모두 대여하였고 작인은 무려 343명으로 가장 많다.

3위 홍순형은 남양 홍씨로 헌종의 계비인 효정왕후의 조카이다. 1874년 문과 을과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갑신정변으로 공조판서에 임명되었고, 1890년에는 형조판서, 1891년 한성부판윤, 1892년 개성부유수를 역임하였다. 양안에 劄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官歷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66결 95부 3속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안면·남변면·북성면에 56.8%에 해당하는 38부 02부 5속이 위치해 있었다. 자작지는 75부 6속이고 나머지 66결 19부 7속을 대여한 전형적인 병작지주이다. 家垵地에는 초가 104채와 기와

29) 『高宗實錄』 권30, 30년 12월 己未.

30) 一鄉暗, 1933, 『朝鮮高官 盛衰記, 半島天地를 흔들던 閔氏三家의 今昔』, 『별건곤』 63호.

31) 『高宗實錄』 권22, 22년 5월 庚子.

32) 韓哲昊, 1996, 『閔氏戚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官僚 研究』, 『아시아문화』 12, 262쪽 ; 당시 국왕이나 정부도 민응식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시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菊池謙讓, 1940, 『近代朝鮮史』 下, 鷄鳴社, 180~181쪽).

집 1채가 있었다. 기와집은 초가 5칸을 포함한 기와 5칸으로 유등면 剡洞北邊에 있는데, 그가 거주하지 않고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7위 閔炯植(1859~1930)은 민병석의 삼촌으로 민영위의 庶子이다. 그는 서얼임에도 높은 관직을 역임하였는데,³³⁾ 임오군란 당시 민비를 호종한 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병석은 初名이 민공식으로 임오군란 때 4촌인 민응식과 함께 민비를 호종하였다. 민비가 환궁한 이후 閔炯植 등은 중용되었는데, 무과 급제하고 이후 파격적으로 발탁되었다. 서른도 안 되어 통제사가 되었던 것이다.³⁴⁾ 그의 토지는 46결 33부 6속으로 4개의 면에 위치해 있었고, 97.8%의 토지가 현재 음성군 지역에 있었다. 생동면에 51.5%, 거곡면에 46.3%가 있었다. 거곡면 장호원 그의 父親 민영위의 집이 있던 곳이다. 거곡면에는 민병석과 민응식의 토지도 많았다. 이들 집안은 거곡면을 중심으로 토지를 확보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7부5속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182명의 작인에게 대여하였다.

8위 민병석(1858~1940)은 민씨 척족의 핵심인물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의 집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오군란을 계기로 부각된 가문으로 그 공이 민병석까지 이어졌다. 민병석은 민비의 지원을 받아 출세하였는데, 일찍이 淸宦高官을 역임하였다.³⁵⁾ 임오군란 이후 홍문관부제학에 임명된 그는 1884년에 성균관대사성을 거쳐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1885년에는 호조·이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며, 갑신정변 이후 설치된 내무부의 협판도 역임하였다. 이후 한성부 좌윤·예조 참판 등을 역임하고, 1889년 강화유수·육영공원판리를 거쳐 평안감사에 임명되었다.³⁶⁾

33) 당시 노론 출신 서얼들이 출세하였는데, 이범진·김가잔·민치현·민상호·민영기 등 급관자나 옥관자를 단 사람들이 조정의 오분의 삼이나 될 정도였다고 한다(黃玆(이장희 역), 2008, 『매천야록』 上, 明文堂, 476~477쪽).

34) 黃玆(김종익 역), 1994,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54쪽.

35) 一鄉暗, 1933, 「朝鮮高官 盛衰期, 半島天地를 흔들든 閔氏後裔의 今日, 當年勢道」, 『별건곤』 64호.

36) 『高宗實錄』 권26, 26년 11월 庚戌.

민병석의 토지는 45결 99부 6속(80.8정보)으로 8개 면에 위치해 있었는데, 모두 현재 음성군 지역에 해당한다. 현 음성군 지역에서도 금왕읍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었고, 나머지도 금왕읍과 인접한 지역에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왕읍은 음성군에서 가장 낮은 지형으로 농경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그는 모든 토지를 199명의 작인에게 대여하였다.

13위 민영휘(1852~1935)는 젊은 나이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고종에게 큰 영향을 끼친 민씨 척족의 대표적 인물이다. 특히, 갑신정변 이후 설치된 내무부의 핵심 관직인 참의·협판·독판을 모두 역임하였다. 독판직에는 1891년에 임명되었는데, 내무부가 폐지될 때까지 민씨 척족의 대표 격은 민영휘였다.³⁷⁾

그는 전국에 걸쳐 토지를 소유하여 ‘조선 제일의 갑부’ 또는 ‘토지대왕’으로 불렸다.³⁸⁾ 그가 13도를 돌아다니며 고르고 골라 沃土良田을 차지하였다고 실상을 전하는 기록도 있다.³⁹⁾ 그는 반도 유일의 부호로⁴⁰⁾ 1930년대 초의 한 조사기록에 의하면 조선에서 첫째로 치는 부자였다.⁴¹⁾ 이 자료는 金性洙系의 재산이 5백만 원 이상이고 민영휘의 재산이 천만 원 이상으로,⁴²⁾ 조선 제일의 갑부로 제1에 민영휘를, 제2에 김성수를 꼽았다.⁴³⁾

37) 韓哲昊, 앞 글(1996), 263쪽.

3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10, 『청산되지 않은 역사, 친일재산』, 142쪽.

39) 『삼천리 10-10』, 1938년 10월 1일자, 「閔氏家 悲劇, 一千萬圓 骨肉訴, 沒后 二年 閔泳徽家에 슬픔의 싸움은 열여 九月二十日 第一回裁判이 서울 서 열니다(돈이나? 骨肉이나?)」.

40) 月朝子, 1917년 7월 10일자, 「其貴其富의 閔泳徽子」, 『반도시론 1-4』.

41) 申泰翊, 1931년 1월 1일자, 「朝鮮最大財閥解剖(二), 閔泳徽氏系一千萬圓, 事業體系=朝鮮韓一銀行, 朝鮮製絲會社, 徽文高普其他」, 『삼천리 11』.

42) 朱潤, 1931년 4월 1일자, 「朝鮮最大財閥 解剖(四), 2百萬圓의 銀行王 朴榮喆氏-朝鮮相業銀行, 米穀倉庫等에 關係」, 『삼천리 14』.

43) 金乙漢, 1931년 2월 1일자, 「朝鮮最大財閥 解剖(三), 崔昌學氏系의 三百萬圓, 事業實蹟은 아주 없스나 全部 現金을 가진 것의 그의 特色」, 『삼천리 12』; 민영휘와 김성수의 재산을 비교하는 기사도 있다(初雷, 1931년 4월 15일자, 「財閥戰線의 報告-閔泳徽 對 金性洙」, 『혜성 1-2』).

충주에는 있는 그의 토지는 36결 88부 8속으로 8개 면에 걸쳐 있었다. 현재 모두 음성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음성군 지역에서도 금왕읍에 56.6%의 토지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토지도 금왕읍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었다. 금왕읍은 음성군에서 가장 낮고 평평한 지형에 속하며,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영남대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다. 그리고 그의 토지는 관리 등이 편한 넓은 평야지대에 집중해 있었다. 그는 소유지 전부를 159명의 작인에게 경작시켰다.

24위 김정규는 고종 21년부터 31년까지 관직에 있었다.⁴⁴⁾ 고종 21년인 1884년에는 별검춘추를 시작으로 1885년에 사서, 부사과, 부교리, 친군전영 군사마에 임명되었고, 1886년에 친군좌영 군사마, 동부승지, 예조참의를 거쳐 1887년에 호조참의, 조사오위장, 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888년에는 병조참지, 동부승지, 부호군, 이조참의, 공조참의를 거쳐 1890년에 대사성, 이조참판,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891년에는 동지춘추관사, 동지돈녕부사, 호군을 거쳐 1893년에 형조참판, 대사헌에 거쳐 1894년에 형조참판, 공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그는 26결 39부 2속의 토지와 초가 5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99.1%에 해당하는 26결 15부 9속의 토지가 양암면에 있으며, 자작지는 없고 모두 대여하였다. 양암면은 현재 양성면에 속한 지역으로 남한강 수로가 지나는 지역이며, 장호원으로 가는 교통로이다.

25위 조장복은 25결 77부 5속의 토지와 초가 57채를 소유하였다. 주류면에 54.1%에 해당하는 13결 95부 9속의 토지가 있었고, 자작지는 6결 41부 4속으로 좀 많은 편이다. 주류면은 풍양 조씨의 세거지로 18위인 조순구의 거주지가 있는 곳이다. 조장복은 풍양 조씨로 派가 다른 것으로 짐작된다. 거주지가 없는데 자작지가 6결 이상 되는 것으로 보아, 주류면에 세거하고 있는 풍양 조씨가 경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6위 민만들은 여흥 민씨로 외척 세도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24결 39부 1속의 토지와 가옥 2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토지는 모두 현재 음성군 지역에 해당한다. 즉 법왕면에

44) 官歷은 『承政院日記』를 참고하였다.

91.2%에 해당하는 22결 24부 7속과 지내면에 2결 14부 4속을 소유하고 있었다. 자작지는 1필지에 해당하는 8속이고 나머지 22결 23부 9속은 대여하였다.

27위 이우상은 고종 31년인 1894년 부호군, 의금부도사를 역임하였다.⁴⁵⁾ 그는 24부 25부 7속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 99.0%에 해당하는 24결 01부 8속의 토지가 복성면에 위치해 있었다. 가옥은 초가 35채가 있었으며, 46부 8속은 자작하고 23결 78부 9속을 대여하였다. 복성면은 현재 양성면으로 남한강 수로에 있는 지역으로 장호원으로 가는 교통로이다.

30위 조동운(1871~1923)은 풍양 조씨 풍안군파로 신정왕후의 조카 조영하의 아들이다. 1887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설서·응교·충어영군사마·동부승지·대사성·형조참의·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육군참령·육군부령·육군참장·궁내부 특진관·원수부 군무국장·육군부장·원수부 검사국총장 등을 거쳤다. 1905년 일본육군 시찰의 특명을 받고 일본에 건너갔다가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서보장(瑞寶章)을 받았다. 1910년 「조선귀족령」에 따라 남작 작위를 받았다.⁴⁶⁾

그의 토지는 22결 75부 7속으로 모두 거곡면에 있었으며, 가옥은 초가 32채가 있었다. 거곡면은 현재 음성군 감곡면에 속한 곳으로 교통로가 발달한 지역으로, 민병석 집안의 세도가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35위 민순만은 여흥 민씨로 위양공파로 짐작된다. 그의 토지가 여흥 민씨 위양공파의 세거지인 지내면과 천기읍면에 소재해 있다. 그는 21결 6부 5속의 토지와 초가 1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내면에 90.7%에 해당하는 19결 10부 6속의 토지가 있었고, 천기읍면에 1결 95부 9속의 토지가 있었다. 지내면과 천기읍면은 음성군 삼성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곳은 금왕읍 본대리와 더불어 여흥 민씨 위양공파 세거지이다.⁴⁷⁾

45)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3월 23일 庚子.

46) 민족문제연구소 편집부, 2009,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 在地地主

10위 이종건은 전주 이씨로 병조판서 이규철의 아들이다. 민씨 정권 하에서 순조롭게 승진하였고, 한규설과 가까운 사이이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에는 시종원총관·호위청총관·경무사·한성부판윤 등으로 시위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1900년 법규교정소의 의정관이 되어 황제의 전제권을 명시한 대한국국제 제정에 참여하였고, 농상공부대신·군무국총장·강원도와 평안도관찰사·군부대신을 지냈다.⁴⁷⁾

그는 42결 49부 5속의 토지와 초가 40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거주지는 천기음면 店洞坪으로 현재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점골이다. 초가 10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자작지 1결 76부가 있고 대부분의 토지는 대여하였다. 맹동면에 가장 많은 토지가 있었는데 50.8%에 해당하는 21결 61부 4속이 있었고, 25.4%에 해당하는 10결 77부 9속이 사다산면에 있었다. 그의 토지는 현재 음성군 맹동면·대조곡면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진천군과 가까운 곳이다. 이종건은 진천군양안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진천군 상위 시주 11위로 12결 82부 1속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옥은 초가 30채가 있었다. 진천군에서도 거주지가 확인되고 있는데, 백곡면 大明洞上里이다. 초가 9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천군에서의 자작지는 1결 2부 9속이고 11결 79부 2속의 토지를 대여하였다.

11위 민병승(1865~1946)은 민응식의 아들로 민병석과는 6촌이다. 그는 成均館 大司成·吏曹參議·吏曹參判·漢城左尹 등 주요 관직을 거쳤다. 임오군란 이후 고종 22년(1885) 乙酉 庭試 丙科 1위로 합격하였는데, 그의 나이 20세였다. 그 역시 군란 이후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부친 민응식과 더불어 세도를 누렸다. 민병승은 40결 67부 8속을 소유하였는데, 대조곡면에 가장 많았다. 그는 6결 56부 2속을 자작하고 34결 11부 6속을 대여하여 작인 146명을 둔 대지주였다.

12위 이종태는 고종 20년부터 41년까지 관직에 있었다.⁴⁸⁾ 고종 20

47) 음성군지편찬위원회, 2008, 『음성군지』, 음성군지편찬위원회, 589쪽.

48)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년인 1883년 오위장 가설, 1884년 부사과, 1886년 회인현감, 1887년 용담현령, 1888년 연기현감, 은율현감, 문화현령, 1892년 양구현감, 1893년 감찰, 1897년과 1898년에는 중추원 이등의관, 1899년 학부참서관, 1901년 학부참서관 겸임 한성사범학교장, 1902년 광제원 사무위원, 1904년 학부편집국장 겸임 외국어학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38결 64부 5속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 맹동면에 61.8%에 해당하는 23결 89부 1속의 토지가 있었다. 거주지는 초가 3칸과 2칸의 동량면 兩牙로 나타는데, 집의 규모로 보아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토지 관리인 마름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자작지는 5결 8부 3속이고 나머지는 대여하였다.

16위 김용규는 안동 김씨로 삼당공파의 후손이다. 삼당공은 김갑규 가문의 派祖인 金璠의 형인 金莢이다. 김영의 후손 중 항렬이 行자이고 삼당공의 8세손인 金載行이 안동을 떠나 충주에서 가까운 제천 덕산으로 이주하였고, 11세손 金現根이 탄금대에 정착하였다. 김현근이 충주로 들어와 대문산(탄금대산)의 북동쪽 자락(탄금대)에 자리를 잡았다⁵⁰⁾

김용규는 35결 54부 5속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옥은 초가 22채가 확인된다. 토지는 엄정면과 소태양면에 많았다. 31.5%에 해당하는 11결 21부 4속이 엄정면에 있었고, 23.6%에 해당하는 8결 39부 3속의 토지가 소태양면에 있었다. 거주지는 초가 3칸의 엄정면 文乃谷과 초가 5칸의 신석면 龍堂洞으로 나타난다. 자작지는 거주지인 엄정면을 중심으로 1결 61부 2속이고 나머지 33결 93부 3속을 대여하였다. 엄정면은 상업적 포구인 목계나루가 있는 곳으로 변화한 지역이다.

17위 김영시는 고종 20년부터 35년까지 관직에 있었다.⁵¹⁾ 고종 20년인 1883년에 부사맹, 1885년에 부사과, 1895년에 법무주사, 1898년에 법무검사와 고등재판소검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33결 95부 7속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 감물면에 62.9%에 해당하는 21결 37부 4속의 토지

49) 官歷은 『承政院日記』를 참조하였다.

50) 김석동, 2007, 『안동김씨 충주탄금대 문중록』, 세명문화사.

51)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3월 5일 乙酉 ; 고종 22년 10월 9일 甲戌 ; 고종 32년 9월 6일 癸卯 ; 고종 35년 12월 11일 庚寅.

가 있었다. 거주지는 감물면 桂潭洞으로 초가 15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작지는 거주지 감물면을 중심으로 33부 7속이고 33결 62부는 대여하였다. 그의 거주지인 감물면 계담동은 현재 괴산군 이담리 계담이다.

18위 조순구는 풍양 조씨 회덕공파로 부인은 연안 김씨로 연흥부원군 김제남의 후손이다.⁵²⁾ 1896년 의녕원 참봉을 역임하였고 1904년에는 시종원 분주사에 임명되었다.⁵³⁾ 1924~1940년까지 屬이라는 관직에 있었으며, 충주세무서에서도 1939년부터 1940년까지 근무하였다.⁵⁴⁾ 1952년도에는 전북 남원군 덕과면부의장을 지냈다.⁵⁵⁾

그는 33결 79부 5속의 토지와 초가 3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거주지는 주류면 창전2리의 초가 15칸과 6칸으로 확인되며, 56.0%에 해당하는 18결 89부 2속의 토지가 주류면에 있었다. 자작지는 거주지 주류면을 중심으로 3결 7부 2속이며 30결 72부 3속은 대여하였다. 묘는 충주 주덕읍 창전리에 있는데,⁵⁶⁾ 창전리는 풍양 조씨의 세거지로 현재에도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19위 민형기(1883~1957)는 여흥 민씨로 문도공파에 속한다. 태종妃 원경왕후의 부친인 민제의 후손으로 민무질 계열에 속한다. 그는 1903년 敬陵 참봉을 역임한 바 있으며,⁵⁷⁾ 법관양성소 박사 출신으로 분원자기주식회사, 주식회사한일은행, 조선제사주식회사, 광업주식회사 등에 두루 참여하였다.⁵⁸⁾

그의 토지는 현재 음성지역인 금목면(금왕읍)·생동면(생극면)·사다산면(삼성면)·법왕면(금왕읍)에 있었다. 가장 많은 토지가 있는 곳은 금목면으로 32.1%에 해당하는 10결 48부 5속의 토지가 있었으며 초가

52) 『풍양조씨한사군과보』.

53)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12월 2일 庚午.

54)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

55) 『대한민국직원록』.

56) 『풍양조씨한사군과보』.

57) 『驪興閔氏世譜』.

58) 全遇容, 1997, 「19世紀末~20世紀初 韓人會社 研究」, 서울대학교 文學博士學位論文, 351쪽.

38채와 기와 1채를 소유하였다. 그는 생동면 신창동대의 기와 23칸 집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2결 56부를 자작하고 30결 14부 1속은 대여하였다. 그의 거주지인 생동면 신창동대는 생극면 신양리로 이곳에 부친의 묘가 있다. 조부와 고조부의 묘는 삼성면에 있으며 5代 祖는 금왕읍에 위치해 있다.⁵⁹⁾ 5代 祖부터 묘역이 충주군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입향 한 것으로 생각된다.

20위 구형조는 1897년에 분시어를 역임하고 1903년에는 육군보병참위에 임명된 기록이 있다.⁶⁰⁾ 그는 29결 96부 3속의 토지와 초가 28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53.4%에 해당하는 15결 97부 9속의 토지가 금천면에 있었고, 그 다음이 울지면으로 이곳에 5결 99부 5속의 토지가 있었다. 거주지는 금천면 外無慢洞의 초가 5칸을 비롯하여 울지면 大塔洞의 8칸과 김생면 毛山洞의 초가 10칸으로 확인된다. 그는 6결 5속을 자작하고 23결 95부 8속은 대여하였는데, 자작지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울지면에 4결 29부 1속, 금천면에 79부 9속, 김생면에 79부 5속이 있었다.

21위 홍정희는 28결 32부 4속을 소유한 지주로 가옥은 초가 46채가 있었다. 거주지는 소파면 雪皮四里岱에 초가 15칸으로 확인된다. 거주지 소파면에 61.3%에 해당하는 17결 37부 5속의 토지가 있었고, 18.8%에 해당하는 5결 31부 1속의 토지가 신석면에 있었다. 그 주변으로 불정면·덕면·금천면·사이면·신니면·울지면에 토지가 있었다. 자작지는 8결 93부 4속이고 19결 39부는 대여하였다. 자작지는 거주지 소파면에 7결 67부 1속으로 가장 많고 신석면에 1결 8부 5속이 있었다.

23위 홍승인은 26결 62부 1속의 토지와 초가 25채를 소유한 지주이다. 거주지는 가차산면 草堂洞岱에 있는 초가 8칸으로 확인된다. 그의 모든 토지는 거주지인 가차산면에 있으며, 자작지가 7결 53부이고 19결 9부 1속은 대여하였다. 가차산면은 현재 충주시 금가면으로 남한강

59) 『驪興閔氏世譜』.

60)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0월 15일 辛未.

수로와 접해 있는 지역이다.

28위 이순길은 1885년 부호군, 돈녕부도정을 지냈고, 1893년에는 장목포별장을 역임한 기록이 있다.⁶¹⁾ 그는 23결 90부 9속의 토지와 초가 26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거주지는 산척면 德海洞堡의 초가 3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토지는 불정면과 금목면 그리고 맹동면에 많았다. 불정면에 54.8%에 해당하는 13결 11부 6속의 토지가 있었고, 금목면에 22.4%에 해당하는 5결 35부 1속이 있었다. 맹동면에는 2결 22부 5속(9.3%)이 있었다. 자작지는 3결 88부 3속이고 나머지 20결 2부 6속은 대여하였다. 자작지는 맹동면과 소탄면에 각각 1결 정도가 있었다. 거주지 산척면에는 1부 6속의 자작지만 있었고, 현재 음성군 지역에 해당 하는 곳에 자작지가 많았다.

29위 조형하(1858~1920) 풍양 조씨 풍안군파로 신정왕후 집안사람이다. 신정왕후의 부친 조만영의 조부 조엄의 동생 조돈이 조형하의 고조부가 된다.⁶²⁾ 조형하는 1879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 품계가 嘉善大夫까지 이르렀다.⁶³⁾ 그의 관직을 살펴보면, 1885년에 부사정, 1886년에 거주서, 검열, 정언, 별검춘추 1887년에는 중학교수, 부교리, 헌납, 교리, 부사과, 친군전영 군사마를 역임하였다. 1892년에는 부수찬, 교리, 부사과 1893년에는 별검춘추, 장령, 부사직, 친군통위영 군사마, 형조참의, 부호군, 돈녕부도정, 동부승지를 1894년에 우부승지, 부호군, 분승지를 거쳐 1897년에는 중추원 이등의관이 되었다.⁶⁴⁾

조형하는 23결 40부 8속의 토지와 초가 37채를 소유한 지주로 산척면 龍巖堡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89.9%에 해당하는 21결 5부 1속의 토지가 금천면에 있었으며, 자작지는 1결 59부 5속으로 21결 81부 3속은 대여하였다. 자작지는 금천면에 1결 26부 1속이 있었고, 거주지 산척면에 33부 4속이 있었다. 금천면은 남한강 수로에 위치하여 고려와 조선 시대에 조창이 있던 곳으로 번창한 지역이다.

61) 『承政院日記』 고종 30년 1월 29일 癸丑.

62) 『풍양조씨한사군과보』.

63) 『풍양조씨한사군과보』.

64) 官歷은 『承政院日記』를 참조하였다.

32위 민영익(1860~1914)은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 정계에 진출하여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받은 민씨 척족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민비의 친정 조카로 관직 진출이 매우 빨랐다. 그는 민비의 후원으로 1877년 18세에 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하였다. 급제 후 다음해인 1878년에 이조참의에 제수되었는데, 이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다. 22세에는 당상에 임명되어 실질적 권한도 부여받았으며, 1880년대 개화정책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의 토지는 22결 59부 3속으로 6개 면에 걸쳐 있었는데, 3개의 면이 현재 음성군 지역에 해당된다. 민영익도 음성군 지역에 토지가 많았다. 가장 많은 토지가 있었던 곳은 법왕면으로 음성군 금왕읍에 속한다. 이곳에 68.4%의 토지가 있었다. 그는 토지 가운데 29부 1속만을 자작하고 22결 30부 2속의 토지를 109명의 작인에게 대여하였다.

33위 윤우영(尹宇榮)은 충주 출신으로 신니면 용원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고종 20년부터 39년까지 관직에 있었다.⁶⁵⁾ 고종 20년인 1883년에 충익위, 1889년에 충훈부검도사, 1891년에 감찰, 1892년에 장악원주부, 혜릉 영, 내무부주사, 제증원주사, 사옹원주부를 거쳐, 1894년에는 사옹원주사, 1895년에는 전선사주사 4등, 효창원참봉을 역임하였다. 1896년에는 순강원수봉관, 효창원참봉이 되었고 1897년에 휘경원수봉관, 1899년에 소경원봉사, 수경원수봉관, 봉상사주사를 거쳐 1900년에 익릉 영, 내장원 공제과 주사에 임명되었다. 1901년에는 경릉 영, 1902년에 현릉 영, 울진군수가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신니 面長을 역임하였다.

面長 재임 시 주민이 원하는 바를 수행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적은 봉급에도 주민들의 구휼에 힘을 기울이고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어 봉양한 공이 있어, 신니면 송암리 산 1번지에 ‘薪尼面長 尹宇榮頌德不忘碑’가 세워졌다. 불망비 뒷면에는 ‘昭和五年’의 연호가 있어 1930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⁶⁾ 그는 1913년에 신니면 용원리에 龍明私立學校를 설립하여 교장에 취임하고, 1920년에 1,000圓

65) 官歷은 『承政院日記』를 참조하였다.

66) 충주문화원, 2006, 『충주의 금석문』.

을 기부하였다. 이 학교는 1921년 4월에 용원공립보통학교로 승격하였다. 1925년 당시 그는 농사를 지으며 신니면 용원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⁶⁷⁾ 이 때가 面長으로 복무하던 시기로 짐작된다.

그의 토지는 22결 39부 6속으로 이 가운데 50.8%에 해당하는 11결 37부 4속이 신니면에 있었다. 자작지는 6결 77부 7속이고 15결 61부 9속은 대여하였다. 거주지는 신니면 本里에 기와 5칸(초가 8칸) 집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작지는 거주지인 신니면 중심으로 신석면과 가까운 덕면에 있었다.

34위 이도춘은 22결 38부 9속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 초가 4채와 기와 1채가 있었다. 기와집은 17칸으로 김생면 盤松에 있었는데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곳은 북진나루가 있던 곳으로 현재 금가면 반송리 김생사지가 위치한 곳으로 남한강 변이다. 그의 토지는 모두 김생면에 위치해 있으며, 자작지는 11결 5부 4속이고 11결 33부 5속은 대여하였다. 자작지가 49.4%로 상당히 많은 토지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지대수익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경영지주의 경영방식이다. 경영지주층은 조선 후기 이래 자신의 토지 가운데 적어도 30% 이상을 직접 경영하던 지주층으로 이들은 직접지 경영확대를 통해 토지생산성 확대를 꾀하고 있었다.⁶⁸⁾

36위 박대현은 충주 출신으로 박서 장군의 후손으로 충민공 박순의 17세 孫이다.⁶⁹⁾ 그는 장릉참봉을 역임한 인물로 고종 11년인 1874년에 돈녕부도정, 1886년에는 순창원수봉관을 역임하였다.⁷⁰⁾ 그의 거주지는 초가 14칸 가옥으로 사다산면 中五柳洞으로 확인된다. 오류동은 증조부 박래복이 순조 때 정착한 세거지로, 이곳에 박래복을 비롯하여 父親 박시중과 숙부 박시재 그리고 아들 박제면의 묘가 있다.⁷¹⁾

67)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면표창자명감』.

68) 최윤오, 2010, 「대한제국기 충주군 양안의 지주제와 부농경영」,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해안, 120쪽.

69) 『朝鮮襄興勝覽』.

70)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6월 22일 癸巳 ; 고종 23년 12월 28일 丙戌.

71) 『朝鮮襄興勝覽』.

그는 20결 94부의 토지와 초가 63채를 소유한 지주로, 세거지인 사다산면에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사다산면에 82.4%에 해당하는 17결 25부 6속의 토지가 있었다. 2결 97부 2속은 자작하고 17결 96부 8속은 대여하였는데, 자작지는 거주지 사다산면과 이곳과 인접한 천기음면에 많았다. 사다산면에 1결 23부 9속이 있었으며, 천기음면에 1결 55부 3속이 있었다.

3. 충주 세거 성씨의 대지주

1) 청주 한씨 대지주

충주 상위 지주 4위·6위·14위인 한성회·한경회·한백영은 청주 한씨로 문정공파에 속한다. 이들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항복하자 호산에 은거하였던 韓如海(1607~1692)의 후손들이다. 한여해를 모신 사당인 仁谷祠가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에 있으며, 이곳에서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 묘소가 있다.

한여해 가문이 충주로 입향한 시기는 父親 한필후 전후로 짐작된다. 한여해의 고향은 여주로 이곳에 先塋이 있는데, 그의 묘는 처음에 여주에 있다가 1699년 충주시 금가면으로 이장하였다. 고향 여주에는 한여해의 祖父·曾祖父·高祖父의 묘가 여주에 있다. 족보에 의하면 선영이 있는 곳이 성남·광주·여주·충주이다.⁷²⁾ 충주 지역에서 묘역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여해의 부친 한필후 부터이다.

한성회는 한여해의 3男 후손이고, 한경회는 한여해의 숙부 한필명의 후손이며, 한백영은 한여해의 次男 후손이다. 이들은 모두 이안면에 있는 기와집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경회는 본래 한여해의 3남 후손이었으나 출계하여 한필명의 후손이 되었다. 한성회와 한경회는 사촌관계로 한성회의 부친 한응구가 한경회의 生父 한응주의 친형이 된다.⁷³⁾

한성회는 충주 상위지주 4위로 63결 87부 4속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가옥은 초가 94채와 기와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기와 집은 13칸

72) 『淸州韓氏第六校大同族譜』.

73) 『淸州韓氏第六校大同族譜』.

(초가 15칸)으로 이안면 대소원동에 있으며,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의금부도사를 시작으로 창성군수·청안군수·교하군수·영동군수·진잠군수를 역임하였다. 그의 묘는 족보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그의 父親과 祖父의 묘소는 한여해를 묘신 사당 仁谷祠 근처인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에 있다.

한경회(1854~1919)는 상위 지주 6위로 49결 10부 4속을 소유하였다. 가옥은 초가 36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도 이안면 대소원동의 기와집 25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垆主는 한백영이다. 한경회는 1891년 38세로 소과에 입격하였으며, 과안에 의하면 당시 거주지가 충주로 기록되어 있다.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1893년 10월 직부회시되고 1895년에 貞陵 참봉에 임명되었다. 이후 1899년에 貞陵 승을 역임하고 1904년에 비서원승에 임명되었다. 한경회가 속한 계열은 여주에 있다가 한경회 代에 이르러 충주지역에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경회부터 묘역이 충주에서 확인된다. 그의 묘소는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에 있다.

한백영(1882~1952)은 상위 지주 14위로 36결 9부 1속을 소유하고, 당시 충주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거주하였다. 이안면 대소원동의 기와 30칸 집에 거주하였으며, 대소원동에 기와집 3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이안면에는 기와 4채가 있었는데, 한 채는 한성회의 소유이고 나머지 3채가 한백영의 소유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30칸 기와집에 자신이 거주하고 나머지 두 채는 한경회와 김귀수에게 대여하였다. 기와집 외에 초가 49채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묘소는 당시 충주지역이었던 음성군 금왕읍 개현리 先塋에 있다. 그의 祖父 한응락과 曾祖父 한자신의 묘도 금왕읍 선영에 있다. 曾祖父 한자신의 첫째 아들이 한응호이고, 둘째 아들이 한백영의 祖父 한응락이다. 묘역으로 유추해 보면, 한응락 계열이 금왕에 세거하고 한응호 계열이 충주에 정착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응호 후손들의 묘가 가금면과 금가면에 있다.⁷⁴⁾

74) 『淸州韓氏第六校大同族譜』.

<표8> 청주한씨 대지주

번호	이 름	소유토지 (결-부-속)	집(채)	주거지	대표관직
1	한성희	63-87-4	기와 -1 초가 - 94	이 안 면 대소원동	의금부도사, 창성군수, 청안군수, 교 하군수, 영동군수, 진잠군수
2	한경희	49-10-4	초가 - 36	이 안 면 대소원동	정릉참봉, 정릉, 비서원승
3	한백영	36-88-8	기와 - 3 초가 - 49	이 안 면 대소원동	

2) 영일 정씨 대지주

충주 상위 지주 5위 정세원, 15위 정해륜, 22위 정필원, 31위 정규원 등은 영일 정씨로 정철의 후손들이다. 이 집안이 충주로 입향한 시기는 정철의 손자이며 장암 정호의 父親인 정경연(1605~1667) 때이다. 정경연이 충주 노은고개의 건설경영 연수원 자리에 터를 잡은 17세기 중반이다. 현재 터를 잡은 노은고개 넘어 정경연의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정경연은 아들 8명을 두었다. 첫 번째 부인 덕수 이씨가 3男까지 낳고 두 번째 부인 여흥 민씨가 5명을 낳았다. 덕수 이씨 소생 3男까지는 충주 노은에서 정착하고, 나머지 5명이 충주 가금면 창동에서 세거하였다. 정호는 여흥 민씨 소생으로 外祖가 민광환으로 立巖 閔齊仁의 4대 손이다.⁷⁵⁾ 정호가 결혼을 하면서 가금면 창동으로 이사를 나왔다.⁷⁶⁾ 가금면의 창동과 누암리는 정세원·정해륜·정필원이 거주한 곳이다. 정세원과 정해륜은 정호의 후손이고 정필원·정경원·정규원은 정호의 동생 정영의 후손이다.⁷⁷⁾

정세원(1856~1902)은 충주 상위지주 5위로 58결 53부 2속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그는 초가 67채와 기와 2채를 소유하였으며, 기와집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와집은 가금면 누암리 광대⁷⁸⁾와 북변면 주봉

75) 『迎日鄭氏清安公派小宗譜』 券上.

76) 정경연의 8번째 아들 정영의 후손 정태준씨의 증언.

77) 『迎日鄭氏清安公派小宗譜』 券中·下.

주점⁷⁹⁾에 있는 것으로, 가금면 광대의 기와집은 5칸(초가 7칸)이고, 북변면 주봉주점은 7칸(초가 20칸)이다. 기와집 2채 모두 정세원의 거주지로 확인된다.

그는 정호의 직계 孫 정해륜의 둘째 아들이다. 1883년 진사로 성균관에서 학업 중 수석을 차지하여 전시에 나아갈 자격을 얻고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⁸⁰⁾ 『高宗實錄』에 의하면, 1890년에 성균관대사성에 제수되었고, 1894년에 이조참의가 되었으며, 민비의 국상에 참여한 노고로 승진하여 이듬해 중추원 1등의관에 임명되고, 평안남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901년부터 1902년까지 종2품의 지위에 있으면서 궁내부 특진관으로 관직생활을 하였다.

정해륜(1826~1906)은 정세원의 父親으로 상위지주 15위에 해당하는 다. 그는 36결 3부 7속의 토지와 초가 54채를 소유하였다. 그 가운데 가금면 누암리에 있는 초가 3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高宗實錄』에 의하면 1866년 이조참의를 거쳐 홍문관제학에 임명되었으며,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이후 규장각 학사를 거쳐 궁내부 특진관 칙임관 2등에 서임되었다. 묘는 가금면 누암리에 있다.⁸¹⁾

정필원(1861~1903)은 상위지주 22위로 27결 70부 2속을 소유하였다. 가옥은 초가 21채와 기와 1채가 있었다. 안주목사⁸²⁾를 역임하였는데, 안주는 청나라와의 무역이 성행하던 곳이다. 그는 관직 재직時 남한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 왔다. 보내온 돈으로 부인이 충주에 땅을 구입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⁸³⁾ 이 토지가 『충주군양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그는 가금면 창동리에 있는 기와 5칸(초가 5칸) 집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집

78) 누암리 소일마을(예성문화연구회, 1997, 『忠州의 地名』 참조).

79) 교현동 주봉(예성문화연구회, 1997, 『忠州의 地名』 참조).

80) 『高宗實錄』 권20, 20년 4월 庚申.

81) 『迎日鄭氏清安公派小宗譜』 券 中.

82) 『迎日鄭氏清安公派小宗譜』 券 下.

83) 정필원의 曾孫 정태준씨의 증언, 정태준씨는 대고모(정필원의 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은 당시 커서 동학교도들이 자주 들어왔다. 동학교도들이 얼마나 자주 들어왔던지 충주 읍내로 이사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⁸⁴⁾

정규원(1851~1902)은 상위지주 31위로 22결 60부 9속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가옥은 초가만 9채가 있었다. 그 가운데 살미면 雙川洞에 있는 초가 7칸과 3칸 집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의 토지는 금천면 외에 살미면에 많이 있었다. 그의 관직을 보면, 의금부사에 제수된 기록이 있다.⁸⁵⁾

<표9> 영일정씨 대지주

번호	이름	소유토지 (결-부-속)	집(채)	주거지	대표관직
1	정세원	58-53-2	기와 - 2 초가 - 67	가금면 누암리 북변면 주봉주집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중추원1등의관, 평안남도 관찰사, 궁내부 특진관
2	정해륜	36-03-7	초가 - 54	가금면 누암리	이조참의, 홍문관제학, 이 조판서, 궁내부 특진관 칙 임관2등
3	정필원	27-70-2	기와 - 1 초가 - 21	가금면 창동리	안주목사
4	정규원	22-60-9	초가 - 9	살미면 쌍천동	의금부사

IV. 맺음말

지금까지 『忠州郡量案』과 양안에서 확인 되는 대지주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충주군양안』은 대한제국기 만들어진 토지대장으로, 『충주군양안』작성과 내용을 통해 당시 국가적 목표로 추진되던 광무 양전 사업이 충주라는 지역적 공간에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충주군양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사람은 양무위원 19명, 조사위원

84) 정태준씨의 증언.

85) 『承政院日記』 고종 30년 2월 5일 戊午.

10명, 학원이 86명이다. 양무위원 19명 중 8명이 『충주군양안』에 시주·시작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양무위원이 소유한 토지와 차경지가 있는 면에는 자신이 양무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위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10명 중 2명이 『충주군양안』에서 확인되 있는데,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양의 토지는 아니었다.

학원의 경우는 86명 가운데 34명이 『충주군양안』에서 확인된다. 『충주군양안』에 기재된 학원 34명 가운데, 자신의 토지와 차경지가 있는 면에 학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3명뿐이다. 그리고 이들 3명은 학원으로 활동한 면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학원의 경우도, 양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차경지가 있는 면에는 학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광무양전사업이 상당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충주는 남한강을 이용하여 서울로 왕래하기 편하여 많은 사대부들이 근거를 두고 있었다. 사대부들이 충주에 지역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忠州郡量案』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忠州郡量案』을 분석하여 통계한 결과, 충주군 대지주들 가운데 주목되는 세도가들이 많았다.

외척을 비롯하여 충주에 세거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한 가문의 지주들이 많이 확인된다. 충주의 대지주층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비중이 큰 존재들이었다. 충청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러한 지주들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례는 드물 것이다.

충주군 대지주들 대부분은 자작지 비율이 낮고 토지를 대여하는 병작지주였다. 그리고 이들의 농업경영은 남한강 중심의 유통망을 이용한 지주경영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토지를 분석한 결과, 많은 경우 남한강 수로와 육로가 발달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즉 남한강 수로와 연결되어 있는 남변면과 북변면을 비롯하여 가흥면·금천면·엄정면·김생면·가차산면·양암면·복성면에 지주들의 토지와 가옥이 많았다. 그리고 교통로가 발달한 지역

인 금목면·법왕면·거곡면·감미면·주류면·덕면·신석면·신니면 등에 토지가 많았다. 특히, 在地地主의 경우 거주지 대부분이 남한강 수로와 가까우며 육로 교통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논문접수: 2014. 11. 2, 심사시작: 2014. 11. 5, 심사완료: 2014. 11. 15]

주제어 : 충주군, 양안, 대지주, 광무양전사업, 대한제국

【참고문헌】

- 『별건곤』 『삼천리』 『해성』 『반도시론』 『承政院日記』 『草亭集』
『經世遺表』 『高宗實錄』 『牧民心書』 『梅泉野錄』 『梧下紀聞』 『擇里志』
『朝鮮寔輿勝覽』 『迎日鄭氏清安公派小宗譜』 『驪興閔氏世譜』
『淸州韓氏第六校大同族譜』 『풍양조씨한사군과보』 『대한민국직원록』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면표창자명감』
- 菊池謙讓, 1940, 『近代朝鮮史』 下, 鷄鳴社.
김석동, 2007, 『안동김씨 충주탄금대 문중록』, 세명문화사.
金容燮, 2003, 「光武年間の 量田・地契事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II, 지식산업사.
민족문제연구소 편집부, 2009,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신영우편, 2010, 『광무양안과 충주의 사회경제구조』, 해안.
왕현중, 1995, 「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예성문화연구회, 1997, 『忠州의 地名』.
이영학, 1995,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_____, 2010,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편), 해안.
李憲祿, 1990, 「개항기 시장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全遇容, 1997, 「19世紀末~20世紀初 韓人會社 研究」, 서울대학교 文學博士學位論文.
최윤오, 2010, 「대한제국기 충주군 양안의 지주제와 부농경영」,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해안.
충주문화원, 2006, 『충주의 금석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10, 『청산되지 않은 역사, 친일재산』.
韓哲昊, 1996, 「閔氏威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官僚 研究」 『아시아 문화』 12.

<Abstract>

『Chungju-gun Land Survey Records』 and Large Landowner in Chungju-gun

Nam, Gum-ja

『Chungju-gun Land Survey Records(忠州郡量案)』 is the cadastre created in the Korean Empire period and enabled us to confirm how the Kwangmu Land Survey Project(光武量田事業) promoted as a national goal at the time was conducted in local area Chungju.

19 land surveyors(量務委員), 10 surveyors(調査委員), and 86 student members(學員) participated in creating 『Chungju-gun Land Survey Records』. 8 of the 19 land surveyors appeared in 『Chungju-gun Land Survey Records』 as landowners and peasants. It is worth nothing that the land surveyors did not serve as a land surveyor in the Myeon(面) where their own land and leased farmland were located. In addition, 2 of the 10 the surveyors were confirmed in 『Chungju-gun Land Survey Records』 and owned their own land in the area. However, they did not own much land.

34 of the 86 student members were confirmed in 『Chungju-gun Land Survey Records』. Only 3 of the 34 student members who served as a student member in the Myeon where their own land and leased farmland were located were described in it. Moreover, the 3 student members did not own land in the Myeon where they served as a student member. As is the case with the land surveyors, these facts show that the Kwangmu Land Survey Project was highly objective.

Many scholar-officials(士大夫) established a base in Chungju

because Namhan River(남한강) made commutes to Seoul convenient. It is confirmed that scholar-officials based a local base in Chungju through 『Chungju-gun Land Survey Records』.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of it, there were many influential people among large landowners in Chungju.

It i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large landowners of influential families that had resided in Chungju for generations including their maternal relatives. Particularly in Chungju, the large landowners in Chungju at the time accounted for a large share of the large landowners. Not only in Chungcheong-do but also throughout the country, it is rare that landowners were concentrated in one area.

Most of the large landowners in Chungju-gun were sharecropping landowners who had a low rate of owned land and leased their land. Moreover, it can be estimated that their farm management was landowner management using a distribution network with a focus on Namhan Rive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land, they were located in the areas with developed Namhan River waterway and land routes. In other words, including Nambyeon-myeon(南邊面) and Bukbyeon-myeon(北邊面) connected to Namhan River waterways, landowners' land and houses were mostly located in Gaheung-myeon(加興面), Geumcheon-myeon(金遷面), Eomjeong-myeon(嚴政面), Gimsaeng-myeon(金生面), Gachasan-myeon(加次山面), Angam-myeon(仰巖面), and Bokseong-myeon(福城面). Furthermore, much of their land were located in areas with developed traffic routes such as Geummok-myeon(金目面), Beobwang-myeon(法旺面), Geogok-myeon(居谷面), Gammi-myeon(甘味面), Juryu-myeon(周柳面), Deok-myeon(德面), Sinseok-myeon(薪石面), and Sinni-myeon(新尼面). In particular, resident landowners' residence was mostly close to Namhan River waterways and located in the place with

developed land traffic.

Key words : Chungju-gun, Land Survey Records, Large Landowner, Kwangmu Land Survey Project, Korean Empire period.